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제 1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 '왕중왕'

페가수스냐 지누스포츠냐

20일 광주 무등경기장서 마지막 승부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천·지·인리그 준결승전이 13일 무등경기장과 용산 A구장에서 치러졌다.

천왕리그 페가수스·지누스포츠, 지왕리그 슬러거스·세한기업 재규어스 그리고 인왕리그 아도니스·블루삭스가 결승전 티켓을 거머쥐며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됐다.

천왕리그의 페가수스는 맥스나인과의 준결승에서 6회 8점을 뽑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11-2로 승리를 거뒀다. 페가수스의 임호성은 빠른 발로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자축했다.

지누스포츠는 1회에만 10점을 뽑아내는 막강 화력을 과시하며 22-3으로 디스커스를 제압했다. 지누 스포츠의 임도현과 김만철은 6회 나란히 무등경기장 담장을 넘기며 홈런타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만철은 승리투수의 영예까지 동시에 안았다.

지왕리그의 준결승경기는 슬러거스와 세한기업 재규어스의 승리로 끝났다.

슬러거스는 유재영·이경수·정광진의 홈런 3방을 앞세워 14점을 뽑아내면서 14-7로 전남대 OB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승천 드래곤즈와 만난 세한기업 재규어스도 4회에만 3개의 홈런으로 7점을 뽑아내며 12-4로 승리를 거뒀다. 세한 재규어스의 국범석은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인왕리그 결승전은 아도니스와 블루삭스의 대결로 압축됐다.

아도니스는 기아차 야구단과의 준결승대결에서 1회 8득점에 성공하면서 14-8로 이겨 결승행을 확정지었다.

블루삭스도 3회 대역전극을 펼치며 승리를 가져왔다. 블루삭스는 5-8로 뒤지던 3회말 대거 10점을 뽑는데 성공하면서 15-8로 결승티켓을 가져왔다.

한편 무등기 초대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 결승전은 오는 20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다.

오전 8시30분 인왕리그 결승전이 열리며, 오전 11시에는 지왕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다. 오후 1시30분에는 제1회 무등기 대회 대미를 장식하는 천왕리그 결승전이 치러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그별 결승 진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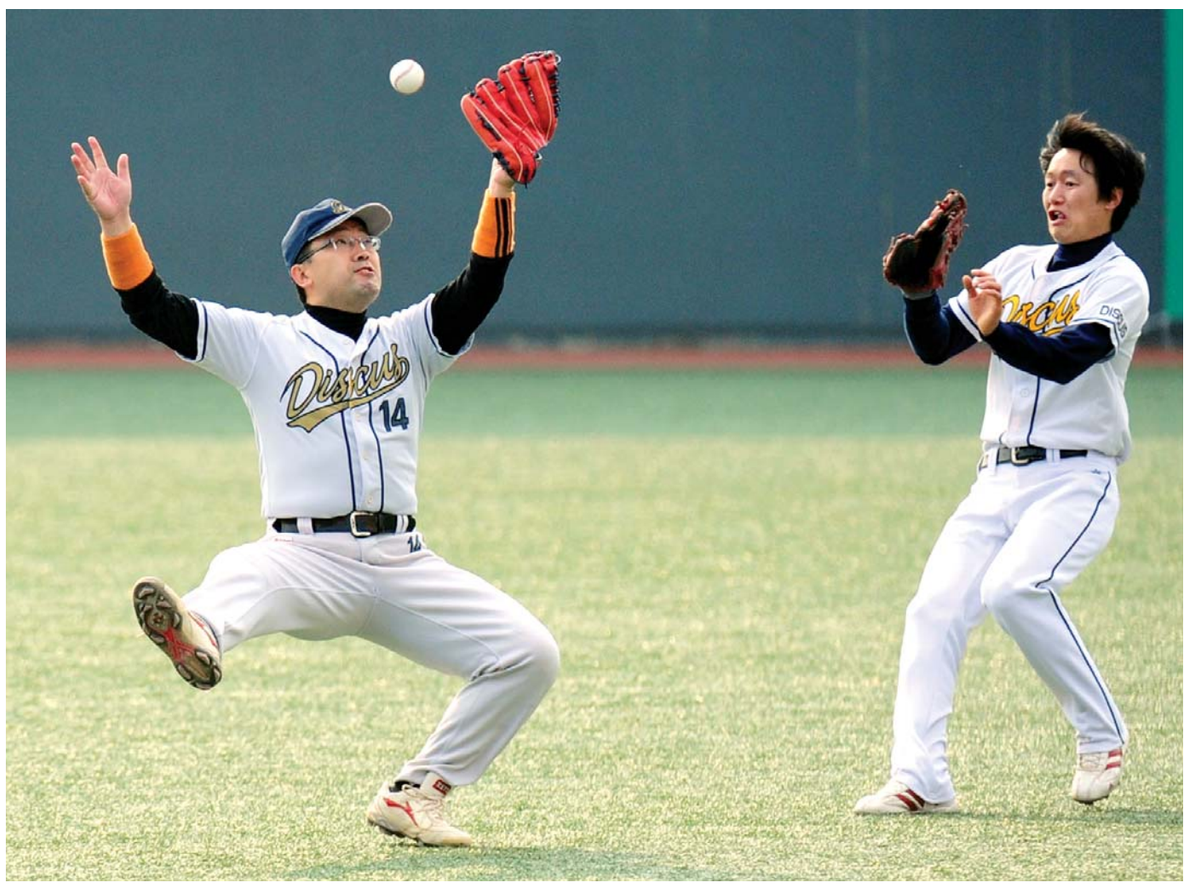
천왕리그
페가수스 VS 지누스포츠

지왕리그
슬러거스 VS 세한 재규어스

인왕리그
아도니스 VS 블루삭스

리그별 준결승전

◇천왕리그
페가수스 0011180-11
맥스나인 0000020-2
△승리투수 김상호
△홈런 임호성(6회2점·그라운드 홈런·페가수스)
디스커스 0100200-3
지누스포츠 1008004X-22
△승리투수 김만철
△홈런 임도현(6회1점)·김만철(6회3점·이상 지누스포츠)
◇지왕리그
전남대 OB 5002000-7
슬러거스 540023X-14
△승리투수 백광열
△홈런 김태훈(4회2점·전남대 OB) 유재영(1회2점)·이경수(2회2점)·정광진(5회1점·이상 슬러거스)
승천 드래곤스 0010012-4
세한 재규어스 020901X-12
△승리투수 정경국
△홈런 이기남(5회1점·승천 드래곤스) 홍길준(4회1점)·국범석(4회4점)·서동관(4회2점·이상 세한 재규어스)
◇인왕리그
기아차 야구단 0120203-8
아도니스 800051X-14
△승리투수 김준
퍼팔로스 1610000-8
블루삭스 4110000X-15
△승리투수 박철희



그라운드에서 춤을 13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천왕리그 4강전에서 디스커스 2루수 노승기(왼쪽)가 2회말 지누 스포츠 유진우의 플라이볼을 놓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암 F1경기장의 피겨퀸 12일 영암 삼호읍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상설트랙에서 열린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시즌 최종전에 참석한 피겨여왕 김연아가 시상대에 오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볼트 육상 올해의 선수

여자선수는 허들 피어슨

'인간 번개'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와 여자 단거리 허들 최강자 샐리 피어슨(25·호주)이 올해를 가장 빛낸 남녀 선수로 뽑혔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13일(한국시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갈라 행사에서 올해의 남녀 선수로 볼트와 피어슨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우즈 부활 '날갯짓'… 호주오픈 3위

우승 찰머스에 2타 뒤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원아시아투어 에미레이츠 호주오픈(총상금 150만 호주달러)에서 3위에 올랐다.

우즈는 13일 호주 시드니의 레이크스 골프장(파72·629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이글 1개,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치며 선전했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우즈는 13언더파 275타로 우승한 그렉 찰머스(호주)에 2타 뒤진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09년 11월 호주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로 2년 넘도록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우즈는 3라운드까지 선두에 6타 뒤진 공동 8위에 머물다가 이날 뒷심을 발휘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9년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 자택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낸 뒤 각종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우즈의 최고 성적은 지난해 12월 셰브론 월드챌린지에서 기록한 준우승이다.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실패했지만 시즌 최고 성적을 올리며 부활 가능성을 예고했다.

1998년 우승한 찰머스가 13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고, 3라운드 선두였던 존 센든(호주)이 12언더파 276타, 1타 차로 준우승했다. /연합뉴스

Canon
Canon 스토어 광주점 OPEN
오픈기념 특가 한정판매!!
이벤트 기간 : 11월 15일까지
EOS 바디 + EF 렌즈 + EF 렌즈 = 더블 캐쉬백
▶EOS 500D 바디 소비자 ~~₩818,000~~ → ₩555,000
▶EOS 500D (18-55렌즈포함) 소비자 ~~₩918,000~~ → ₩650,000
▶IXUS 300HS+CASE 소비자 ~~₩429,000~~ → ₩262,000
▶IXUS 310HS+CASE 소비자 ~~₩399,000~~ → ₩291,000
▶POWER SX30IS+CASE 소비자 ~~₩599,000~~ → ₩495,000
각 관공서, 기업체, 납품전문업체 및 도매
Canon 스토어 광주점 TEL. 062)383-3000
- 광주시 북구 임동 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 -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할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할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